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The Relationships of Adult Children's Caregiving Burden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with Marital Satisfaction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이주연*
조교수 정혜정**
Dept. of Housing, Child & Family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Course : Lee, Ju-Yeon
Assistant prof. : Chung, Hye-J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adult children's caregiving burden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with marital satisfaction.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method was performed to collect data from 259 couples who lived in Chollabuk-Do province.

The major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giving burden,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husbands and wives. That is, the level of caregiving burden was found to be lower for husbands than for wives, while the degrees of marital satisfaction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were higher for husbands than for wives. The levels of caregiving burden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were also found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parents' financial capacity and social activities.

Second, Both husbands' and wives' marital satisfac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negatively with caregiving burden.

Finally,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was negatively influenced by strain and positively by affectional solidarity after controlling the effect of age, educational level, and parents' social activities. Wives' marital satisfaction was negatively affected by strain resulting from caregiving burden, indicating that the higher the strain, the lower the degree of wives' marital satisfaction.

▲ 주요어(key words) : 부양부담(caregiving burden), 세대간 결속(inter-generational solidarity),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급속한 의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생활의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60년 52.4세에서 2000년 75.9세로 20년 이상 크게

연장되었고, 65세 이상의 인구도 2019년에는 전체인구의 14%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1). 평균수명의 연장과 이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등은 가족생활주기에서 노년기가 장기화되었음을 의미하며 기혼자녀에게는 노부모와의 관계 기간이 연장됨을 의미한다.

한편 197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구조가 변화되었고,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와 평등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영향으로 부부관계

* 주저자 : 이주연 (E-mail: tullee0221@hanmail.net)

** 교신저자 : 정혜정 (E-mail: chunghj@moak.chonbuk.ac.kr)

와 부모-자녀관계는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된 반면에, 기혼자녀의 노부모와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가족내 노부모 부양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김송애, 1991). 그리고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로 노인 홀로 또는 노인부부만이 생활하는 노인 단독가구가 1985년 20.5%에서 1994년 28.7%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60.6%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통계청, 2001)된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기혼자녀들과 별거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노인들 역시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혼자녀들은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으로 여전히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나 규범적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노인복지의 정책에서 노인 부양문제를 일차적으로 기혼자녀가 책임지도록 기대하고 있다(김송애, 1991). 노부모 부양부담의 책임은 기혼자녀들의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기혼자녀의 노부모 부양에 수반되는 어려움 때문에 기혼자녀와 노부모간의 세대관계가 악화되면서 이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과 결혼만족에 대한 연구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노부모 부양부담이나 세대간 관계의 선행 연구들은 노부모 부양부담이나 세대간 결속 중 한 쪽 측면만을 연구하는 데에 초점을 두거나, 가족내에서 부양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며느리나 딸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은 정서적 체계이므로 한 가족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은 다른 가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부담의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부인 뿐 아니라 남편도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은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이나 세대간 결속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핵가족이 주를 이루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중심이 되는 부부관계를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데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측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이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부부의 결혼만족도에는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노부모와 기혼자녀의 관계 향상과 기혼자녀의 건강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는 부부와 노부모의 일반적 특성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는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3)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과 세대간 결속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노부모 부양부담

1) 노부모 부양부담의 개념

부양부담은 부양스트레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노년학 문헌에서 부양 역효과(Montgomery, 1985), 부양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이나 부정적 결과(Cicirelli, 1983b), 부모로 인해 겪는 희생(Sung, 1990), 부양비용(Walker, Pratt, & Oppyl, 1992) 등과 같은 의미로 언급되며, 노부모 부양부담은 부양자인 기혼자녀가 피부양자인 노부모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어려움을 뜻한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기혼자녀는 좌절감, 긴장, 감정적 소모, 무력감(Cicirelli, 1983b), 친구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죄의식, 짜증과 같은 감정적 대가와 시간 부족, 사생활 제한, 육체적 부담과 같은 신체적 대가(Brody, 1985), 그리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대가(Walker, Pratt, & Oppyl, 1992) 등 다차원적 경험을 하게된다. 따라서 부양부담과 스트레스는 노부모와의 관계 및 다른 가족원과의 관계에는 물론 부부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들에서 부양자의 부양부담 내용은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생활 부족, 육체적 부담, 긴장감, 심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 죄책감의 6영역(김명자, 안선영, 한정화; 1996)으로 구분하였다.

2) 노부모 부양부담의 관련 변인

노부모 부양부담은 부양자인 기혼자녀 특성 및 피부양자인 노부모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성미애, 1991; 송현애, 1993; 이신숙·서병숙 1993; 이윤정, 1994; 양옥남, 1994; 이정화, 1999; Suitor & Pillemer, 1988). 따라서 노부모 부양부담과 관련된 변인들을 동·별거뿐 만 아니라, 기혼자녀(부부)의 특성, 노부모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별거에 따른 노부모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자녀가 별거하고 있는 기혼자녀보다 약간 더 높은 부양 부담감을 보였다(성미애, 1991). 반면 기혼자녀가 노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노부모를 부양할 경우는 두 집을 왕래하면서 부양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이형실, 1992), Fischer(1983)도 노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기혼자녀는 자신의 가정과 노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과중한 부담으로 기혼자녀 자신들의 개인적인 시

간과 공간을 조절하지 못하여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따라서 노부모와의 동거가 부담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연구들은 부양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의 다양성 때문에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서 동·별거에 따른 부양부담 차이는 일관적이지 않다.

둘째, 기혼자녀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 연구들은 월 평균 수입, 연령, 형제(며느리)순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혼자녀의 월 평균 수입은 여러 연구(이신숙·서병숙, 1993; 송현애, 1987; 이윤정, 1994)들을 통해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측면의 도움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져 왔다. 즉 기혼자녀가 고소득자일수록 노부모를 부양할 때 느끼는 경제적 부양부담을 적게 지각하였다. 기혼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양부담감을 살펴보면, 기혼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양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송현애, 1993; 이신숙·서병숙, 1993) 이는 기혼자녀의 연령 증가는 노부모의 연령증가와 관련되어 노부모의 경제적, 육체적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형제(며느리)순위에 따라 노부모 부양부담 차이를 보였다. 즉 아들을 노후 부양의 1차적 책임자로 여겨 왔던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해 며느리는 딸보다 더 많은 부양부담을 지각하고 있었고, 만며느리가 둘째 며느리 이하 보다 높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송현애, 1993; 이신숙·서병숙, 1994; 이윤정, 1994; 한은주, 1993).

셋째, 노부모 특성에 따른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들은 노부모 건강상태, 경제능력, 노부모 생존여부 등에서 분석되어 왔다. 우선 노부모의 건강상태가 중요한 변인으로 분석되었는데 노부모에게 건강상 기능적 손상이 있을 경우의 기혼자녀는 더 많은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나, 노부모가 건강할 경우 노부모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혼자녀 세대의 부양부담도는 낮았다(성미애, 1991). 노부모의 경제능력과 부양부담의 관계에서는 노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기혼자녀세대의 노부모 부양부담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성미애, 1991). 그리고 노부모 생존여부에 따른 부양부담감을 살펴보면, 노부모의 배우자가 없을 때 부양자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이신숙·서병숙, 1994), 노부만 생존해 있는 경우에 가장 높은 부담감을 나타냈다(이윤정, 1994).

2. 세대간 결속

1) 세대간 결속의 개념

결속이란 구성원간의 상호보완, 상호의존 및 규범과 가치의 공유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도 부모-자녀 등 여러 세대간의 결속이 중요시되는 소집단 중의 하나이며, 결속에 의해 스트레스 사건 상황에서 가족원들과 서로 유대관계를 맺고 의지하면서 보다 쉽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세대간 결속은 가치적 일치, 긍정적 감정, 그리고 빈번한 상호작용과 같은 직계 세대간의 상호작용으로 부모자녀간 연결을 갖는 특별한 유대감이라 할 수 있다. Bengtson과

Scharder(1982)는 세대간 결속의 영역을 6가지 - 구조적, 접촉적, 애정적, 규범적, 일치적, 기능적 - 로 제시했고,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도 기혼자녀와 노부모간의 역동적 관계를 파악하는데도 그 유용성이 밝혀져 왔다(신효식, 1993; 조병은, 1990; 최정혜, 1992).

2) 세대간 결속의 관련 변인

세대간 결속을 기혼자녀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경험적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나, 동·별거에 따른 연구와 기혼자녀 및 노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별거는 기혼자녀와 노부모간의 세대간 결속과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최정혜, 1992). 이행규(1996)는 노부모와 동거하는 기혼자녀가 별거하는 기혼자녀보다 세대간 결속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부모와의 동거가 오히려 세대간에 만족스러운 유대관계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Cicirelli(1983a)의 연구에서는 노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기혼자녀는 부모에 대한 규범적·애정적 결속이 별거 자녀보다 높았고, 동거하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지원제공 및 교환관계가 더 활발하기 때문에 별거 기혼자녀보다 동거 기혼자녀가 기능적 결속에서 더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자녀들도 노부모와 비교적 빈번한 접촉을 유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icirelli, 1983a)

둘째, 기혼자녀의 특성에 따른 세대간 결속은 기혼자녀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 노부모에게 물질적 제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현애, 1987; 전길량, 1993). 부부간 차이를 보면 남편이 부인보다 노모와 정서적 유대가 강했고(Cicirelli, 1983a), 기혼자녀로서의 의무감은 특히 장남이 높다. 남편은 부모에 대해 애착과 갈등을 크게 지각하는 반면 부인은 의무감과 갈등을 크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대간 결속에 있어서의 노부모 특성은 노부모 건강상태, 연령, 사회적 활동정도, 경제능력, 노부모 생존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선 노부모 건강 상태는 기혼자녀와 노부모간의 접촉정도와 노부모에 대한 도움 제공 정도에 영향을 주었다(Spitze & Miner, 1992). 즉 노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노부모는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장선주, 1989), 기혼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의 양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 접촉 횟수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경혜, 1996). 노부모의 연령도 접촉빈도에 영향을 미쳐서 노부모의 연령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기혼자녀와 접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길량, 1993). 또한 노부모의 연령은 사회적 활동과 관련되며, 노부모의 사회적 활동정도가 많을수록 기혼자녀와 세대간 결속이 더 높게 나타났고 사회활동정도가 많을수록 기혼자녀와 노부모간의 세대간 결속이 더 높게 나타났다(신효식·서병숙, 1992; 최정혜, 1992). 노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른 연구결과를 보면 경제능력이 없는 노부모는 기혼자녀에게 더 큰

책임 기대와 의존을 요구하는 반면 노부모가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기혼자녀의 원조가 감소한다고 하였다(Stoller, 1989). 노부모 생존여부 역시 기혼자녀와 노부모의 세대간 결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는데,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홀로된 노인보다 심리적 적응, 생활만족, 행복감 등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홀로된 노인은 가족체계의 자원에 더 의지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좀더 높은 기대를 가지기 쉽다고 하였다(Seelbach, 1977).

3.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 관계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과 세대간 결속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근거는 가족체계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족체계이론에 의하면 가족을 구성하는 하위체계들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과 세대간 결속은 부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부부관계의 질은 구체적으로 결혼만족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적용, 결혼행복도, 결혼의 질, 결혼의 안정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개인이 결혼생활에 대해 가지는 기대 및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사이의 일치 정도와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충족 대 불충족, 행복 대 불행, 유쾌 대 불쾌의 현상으로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Burr, 1979)을 말한다.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과 세대간 결속이 결혼만족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가관계나 시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혼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부모와의 세대간 결속은 부양부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와의 세대 관계가 친밀했었다고 평가한 기혼자녀는 그렇지 않았다고 평가한 기혼자녀보다 부양부담이 더 적었고, 노모의 건강이 악화되기 전 노모와 밀접한 세대관계를 보고했던 기혼자녀들은 그렇지 않았던 기혼자녀들보다 부양과정에서 더 적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다(Williamson & Schulw, 1990). 이런 연구결과는 기혼자녀가 노부모와 맺었던 세대간 결속의 하위영역 중 애정적 결속이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노부모에 대한 기혼자녀의 실제적인 애정 없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돌보는 기혼자녀는 노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죄의식과 노부모를 돕는 행동으로부터 정서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여 부양부담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이신숙, 1994). 결국 노부모와의 빈약한 세대간 결속은 부양부담을 증가시키고 남편보다 부인은 노부모와 애정적 유대와 규범적 유대가 낮아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기능적 결속에서는 남편보다 부인이 높으며 이로 인해 높은

부양부담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애정적 결속과 규범적 결속이 낮고 기능적 결속이 높을수록 부양부담은 높아졌다(이신숙, 1994).

다음으로 기혼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관련 연구들을 통해서 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기혼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있어서 갖는 부정적인 결과는 노부모와의 관계 및 노부모에게 제공되는 부양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가족관계의 긴장, 부부관계의 긴장을 가져온다고 하였다(Baruch & Barnett, 1983). 그리고 기혼자녀가 노부모 부양시에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앞으로의 노부모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소극적으로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Cicirelli, 1983a). 결국 이런 노부모 부양부담으로 인해 기혼자녀와 노부모 세대간 뿐 아니라 부부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며, 기혼자녀의 노부모 부양시의 부담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가족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혼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이 클 때 기혼자녀세대 부부관계 해소(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부모세대로부터 자식세대의 주거 및 관계의 독립(분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Cicirelli, 1983a)고 하였다.

기혼자녀의 노부모와의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 관계는 매우 단편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병은과 신화용(1992)의 연구에 의하면 기혼자녀와 노부모와의 세대간 결속이 좋지 않을수록 기혼자녀의 결혼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만족도는 간접적으로 기혼자녀의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세대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연구도 있다(우미경, 1988). 이처럼 기혼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과 세대간 결속이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것으로 예측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2001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50쌍의 부부(100부)를 대상으로 남편용과 부인용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고, 이 예비조사를 토대로 주요 변수들의 신뢰도를 검토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가족구조상 많은 변화가 생겼으나, 여전히 전통적인 부계 가족제도적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부모를 남편은 자신의 친부모, 부인은 시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전라북도 전주시에 거주하며 한 명 이상의 노부모가 생존한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아파트, 회사, 종교단체, 학교 등을 통해 배포하였고 당일 또는 2-3일 후에 회수하였

다. 총 330쌍의 부부(660부)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560부인 총 280쌍이 회수되었으나 이 가운데 응답이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259쌍(총 518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 <표 2>과 같다.

<표 1> 부부의 일반적 성격

변인	구분	명(%)	
		남편	부인
연령	30대 이하	136 (52.9)	172 (67.4)
	40대	89 (34.6)	68 (26.5)
	50대 이상	32 (12.5)	16 (6.4)
	평균	40.0 세	36.8 세
교육 수준	고졸 이하	86 (33.3)	140 (54.5)
	대학교 졸업	119 (46.1)	97 (37.7)
	대학원 이상	53 (20.5)	20 (7.8)
직업	전문직	86 (33.9)	36 (14.2)
	중급직	96 (37.8)	50 (19.7)
	단순직	52 (20.5)	13 (5.2)
	기타	20 (7.7)	25 (9.9)
	전업주부	-	129 (51.0)
종교	무교	99 (39.6)	69 (27.2)
	천주교	26 (10.4)	25 (9.8)
	기독교	111 (44.4)	142 (55.9)
	불교	14 (5.6)	18 (7.1)
월 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	58 (23.8)	
	151 - 200만원	72 (27.8)	
	201 - 300만원	70 (28.7)	
	300만원 이상	44 (17.0)	
	평균	247 만원	
형제(며느리) 순위	외(며느리) 아들	35 (13.6)	
	만(며느리) 아들	94 (36.4)	
	둘째(며느리)아들 이하	129 (50.0)	

2. 조사도구

1) 부부 및 노부모의 일반적 특성

부부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 평균 수입, 종교, 형제(며느리)순위를, 노부모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노부모 생존여부, 노부모 경제능력, 노부모 연령과 노부모 건강상태, 노부모 사회활동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노부모 부양부담 척도

노부모 부양부담 측정 도구로 김명자, 안선영, 한정화(1996)가 만든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28문항으로 사생활 부족(7문항), 육체적 부담(3문항), 긴장감(5문항), 심리적 부담(6문항), 경제적 부담(4문항), 죄책감(3문항) 등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부모 부양부담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표 2> 노부모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노부모 생존 여부	부모 모두 생존	138 (53.3)	노부모 경제 능력	자녀에게 전적 의존	38 (14.8)
	모만 생존	109 (42.1)		자녀에게 부분적 의존	102 (39.7)
	부만 생존	12 (4.6)		자립	88 (34.2)
노부 연령	65세 이하	57 (38.4)	노부 건강 상태	자녀에게 도움 제공	29 (11.3)
	66 - 70세	39 (26.2)		건강하지 못한 편	35 (23.5)
	71 - 75세	21 (14.1)		보통	64 (24.7)
	75세 이상	32 (21.6)		건강한 편	50 (33.6)
	평균	69 세			
노모 연령	65세 이하	99 (40.3)	노모 건강 상태	건강하지 못한 편	79 (30.5)
	66 - 70세	52 (21.2)		보통	121 (46.7)
	71 - 75세	47 (19.0)		건강한 편	48 (18.5)
	75세 이상	48 (19.4)			
	평균	68 세			
노부모 동거 형태	한 분만 독거	39 (15.2)	노부모 사회 활동	전혀 참여 안 함	46 (17.9)
	노부부만 기거	85 (33.1)		월 1회	42 (16.2)
	장남부부 함께	60 (23.3)		월 2-3회 이상	27 (10.4)
	장남의 아들부부 함께	44 (17.1)		주 1회 정도	57 (22.0)
	딸 부부 함께	4 (1.6)		주 2-3회 이상	85 (32.8)
	미혼자녀 함께	18 (7.0)			
	기타	7 (2.7)			
	동거	66 (25.5)			
구조적 결속	결어서 30분 이내	43 (16.6)	동·별거	동거	66(25.5)
	차로 30분-2시간	115 (44.4)		별거	192(74.1)
	차로 2시간 이상	34 (13.1)			

3) 세대간 결속 척도

부부와 노부모간의 세대간 결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Bengtson과 Schrader(1982)의 척도와 Bengtson, Mangen과 Landry(1984)의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우리나라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최정혜(1992)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모두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애정적 결속은 부부와 노부모간의 주관적 관계로 부부가 노부모로부터 느끼는 이해, 신뢰, 존중, 사랑, 친밀감, 의사소통, 협조 등의 긍정적 감정상태를 측정하는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규범적 결속은 가족주의에 대한 규범으로 부부의 부양(효)에 대한 의무감을 말하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기능적 결속은 부부와 노부모간의 경제적,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 등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일치적 결속은 부부와 노부모간의 일상생활에서의 일반적인 자녀양육, 금전관리, 인생관 등에 관한 가치의 일치정도가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4문항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의 결속이 높음을 나타낸다.

4)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Schumm 등(1985)의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윤경자(1997)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KMSS는 응답자가 자신의 결혼생활 만족과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 그리고 배우자로서의 만족도 등을 측정한 것으로 모두 3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 불만족'에 1점에서부터, '매우 만족'에 7점까지 7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

각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사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각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척도		남편	부인
부양 부담	사생활부족	.83	.91
	육체적 부담	.74	.76
	긴장감	.74	.82
	심리적 부담	.73	.83
	경제적 부담	.76	.76
	죄책감	.68	.58
	전체	.92	.94
세대간 결속	애정적 결속	.92	.94
	규범적 결속	.72	.68
	기능적 결속	.75	.75
	일치적 결속	.75	.78
	전체	.89	.90
결혼만족도		.95	.95

3. 자료 분석

연구결과 분석에 사용된 주요 통계방법은 SPSS WIN 10.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와 paired t-test, two-way ANOVA, t-test와 ANOVA, Duncan의 사후검증,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부부와 노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1) 부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부부가 지각하는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의 부부간 차이는 <표 4>와 같다. 먼저 전체 노부모 부양부담은 남편과 부인 모두 중간점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부부간에는 부인이 남편보다 더 높게 나타내어 선행연구(김경신·이선미, 1998; 이윤정, 1994)의 결과와 일치했다. 각 하위영역별로, 남편과 부인 모두 사생활 부족, 육체적 부담, 긴장감, 심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 등의 영역에서는 중간 점수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죄책감에서는 남편, 부인 모두 중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부담을 제외한 사생활 부족, 육체적 부담, 긴장감, 심리적 부담, 죄책감에서 부부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남편보다 부인이 노부모 부양부담에 따른 사생활 부족과 육체적 부담, 긴장감, 심리적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죄책감 영역에서는 부인보다 남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의 노부모와의 세대간 결속은 남편(2.80), 부인(2.55) 모두 중간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부부가 지각하는 노부모와의 세대간 결속은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남편이 부인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최정혜,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각 하위영역별로 남편이 부인보다 애정적·규범적·기능적·일치적 결속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세대간 결속의 4영역에서 남편의 규범적 결속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대간 결속의 4영역에서 남편의 규범적 결속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기혼자녀로서의 의무감은 아들 특히 장남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송현애, 1987)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부부가 느끼는 결혼만족도는 남편이 5.56점, 부인이 5.10점으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부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부관계나 결혼생활에 있어서 남·여간의 차이를 지적한 많은 연구들(정현숙, 1997; 조유리·김경신, 2000)과 일치한다. 이는 결혼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경험으로 존재하지 않아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남편과 부인으로서 다른 인식을 하며 남편보다 부인에게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김명자, 1985)고 볼 수 있다.

<표 4>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의 부부간 차이

		M(SD)		
변인		남편	부인	paired t
부양 부담	사생활 부족	1.70 (.50)	1.83 (.63)	-3.84***
	육체적 부담	1.71 (.61)	1.84 (.62)	-3.32**
	긴장감	1.64 (.52)	1.82 (.59)	-4.92***
	심리적 부담	2.01 (.53)	2.09 (.63)	-2.16*
	경제적 부담	1.82 (.56)	1.85 (.58)	-.87
	죄책감	2.70 (.63)	2.37 (.55)	7.43***
	전체	1.88 (.42)	1.94 (.49)	-2.38**
세대간 결속	애정적 결속	3.00 (.54)	2.66 (.60)	7.89***
	규범적 결속	3.07 (.44)	2.76 (.41)	9.91***
	기능적 결속	2.50 (.46)	2.40 (.49)	4.03***
	일치적 결속	2.64 (.55)	2.38 (.60)	7.02***
	전체	2.80 (.37)	2.55 (.40)	10.49***
결혼만족도		5.56 (1.27)	5.10 (1.38)	6.25***

* p<.05, ** p<.01, *** p<.001

2) 노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우선 동·별거에 따른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서 <표 6>과 같다. 남편과 부인 모두 동·별거에 따라 전체 노부모 부양부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전체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노부모 부양부담에서는 남편의 경우 별거 집단보다 동거 집단의 사생활 부족과 긴장감이 더 높았고, 부인의 경우 별거 집단에 비해 동거 집단이 죄책감을 제외한 사생활 부족, 육체적 부담, 긴장감, 심리적 부담, 경제적 부담이 더 높았다. 남편과 부인 모두 별거보다는 동거일 때 노부모 부양부담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별거에 따라 남편보다는 부인이 노부모 부양부담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노부모와 동거하는 부인은 별거하는 부인보다 노부모 부양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기혼자녀가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별거하는 경우보다 부담감이 크다(성미애, 1991)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5> 동·별거에 따른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의 차이 M(SD)

변 인		동 거 (66쌍)	별 거(193쌍)	t 값	
부 양 부 담	남 편	사생활 부족	1.93 (.55)	1.62 (.46)	4.41***
		육체적 부담	1.75 (.64)	1.69 (.60)	.63
		긴 장 감	1.77 (.56)	1.60 (.50)	2.33*
		심리적 부담	2.09 (.54)	1.99 (.53)	1.31
		경제적 부담	1.89 (.60)	1.79 (.54)	1.27
		죄 책 감	2.67 (.53)	2.71 (.66)	-.54
		전 체	1.99 (.46)	1.85 (.40)	2.40*
	부 인	사생활 부족	2.38 (.66)	1.64 (.50)	9.53***
		육체적 부담	2.13 (.71)	1.74 (.56)	4.58***
		긴 장 감	2.07 (.62)	1.73 (.55)	4.28***
		심리적 부담	2.30 (.62)	2.01 (.61)	3.26**
		경제적 부담	2.06 (.65)	1.77 (.54)	3.47**
		죄 책 감	2.34 (.57)	2.38 (.54)	-.60
전 체	2.23 (.53)	1.84 (.44)	5.81***		

* p<.05, ** p<.01, *** p<.001

<표 6> 동·별거에 따른 부부의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M(SD)

변 인		동 거 (66쌍)	별 거(193쌍)	t 값	
세 대 간 결 속	남 편	애정적 결속	2.97 (.63)	3.00 (.52)	-.44
		규범적 결속	3.10 (.44)	3.06 (.44)	.70
		기능적 결속	2.68 (.44)	2.45 (.45)	3.59***
		일치적 결속	2.62 (.62)	2.65 (.53)	-.36
		전 체	2.84 (.43)	2.79 (.36)	.94
	부 인	애정적 결속	2.57 (.62)	2.69 (.60)	-1.43
		규범적 결속	2.78 (.42)	2.76 (.41)	.31
		기능적 결속	2.69 (.42)	2.30 (.47)	6.02***
		일치적 결속	2.39 (.62)	2.37 (.60)	.14
		전 체	2.61 (.38)	2.53 (.41)	1.31
결 혼 만 족 도	남 편	5.42 (1.25)	5.63 (1.28)	-1.12	
	부 인	5.08 (1.31)	5.09 (1.41)	-.05	

* p<.05, ** p<.01, *** p<.001

동·별거에 따른 세대간 결속의 차이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기능적 결속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동거 집단의 기능적 결속이 별거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부가 노부모와 별거일 때보다 동거일 때 노부모와 상호작용이 보다 많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동·별거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부가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별거하는 경우보다 남편과 부인 모두 노부모 부양부담이 높았으며, 노부모와의 세대간 결속도 남편, 부인 모두 별거하는 부부보다는 동거하는 부부의 결속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부가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별거하는 경우보다 노부모 부양부담감이 클 뿐 아니라 세대간의 결속도 높은 경향을 보인 연구 결과(성미애, 1991; 윤순덕·한경혜, 1994; 조병은·신화용, 1992)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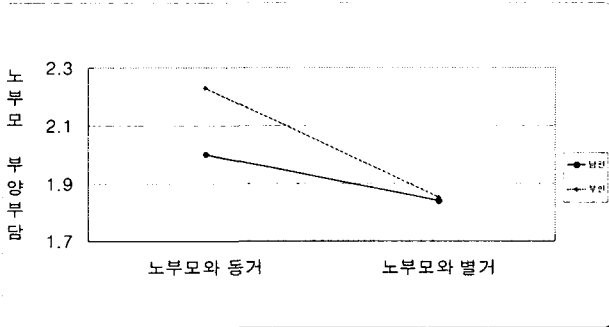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가 성별과 동·별거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를 Two-way ANOVA를 통해 탐색적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노부모 부양부담에서만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그 결과는 <표 7> 및 <그림 1>과 같다. 즉, 노부모와 별거하는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부담에서 부부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동거하는 경우에는 남편보다 부인이 느끼는 노부모 부양부담 정도가 훨씬 더 높았다.

<표 7> 노부모 부양부담에 대한 동·별거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구분	동거	별거
남편	2.00 (.46)	1.84 (.40)
부인	2.23 (.53)	1.85 (.44)
	변수	통계량
주효과	동·별거	F = 4.87
-	성별	F = 1.08
상호작용	동·별거×성별	F = 7.08**

** p<.01



<그림 1> 노부모 부양부담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다음으로 부부가 지각한 노부모 경제능력에 따른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부모 부양부담의 경우 남편, 부인 모두 노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노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응답한 집단(남편 2.14, 부인 2.31)이 다른 집단보다 전체 노부모 부양부담이 더 높았다. 노부모 부양부담의 하위영역별로 보면 사생활 부족, 육체적 부담, 긴장감, 심리적 부담은 노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높은 반면에 노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른 죄책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송애, 1991; 성미애, 1991; 이윤정, 1994)와 일치하는 연구결과로, 노부모의 경제능력은 부모세대에게 있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경제적 자원이 되어 기혼자녀세대의 노부모 부양부담을 낮출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세대간 결속의 경우 남편, 부인 모두 노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전체 세대간 결속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하위영역 중 노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기능적 결속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노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응답한 집단과 자녀가 노부모의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집단이 다

른 집단 보다 기능적 결속이 더 높았다. 한편, 결혼만족도는 남편, 부인 모두 노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노부모 경제능력에 따른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의 차이

		M(SD)/D				F 값	
변인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	자녀에게 부분적으로 의존	노부모 자신이 해결	자녀에게 도움 제공		
부양부담	남편	사생활 부족	1.96(.59) a	1.71(.46) b	1.59(.50) b	1.66(.43) b	4.92***
		육체적 부담	1.99(.71) a	1.72(.62) b	1.61(.54) b	1.56(.50) b	4.23**
		긴장감	1.87(.60) a	1.67(.53) b	1.54(.45) b	1.58(.50) b	4.04**
		심리적 부담	2.32(.60) a	2.02(.52) b	1.87(.50) b	1.98(.43) b	6.80***
		경제적 부담	2.16(.63) a	1.85(.52) b	1.68(.52)ab	1.60(.48) c	9.03***
		죄책감	2.75(.50)	2.71(.67)	2.62(.65)	2.85(.57)	1.14
	부인	사생활 부족	2.30(.81) a	1.75(.54) b	1.73(.52) b	1.83(.73) b	9.46***
		육체적 부담	2.14(.77) a	1.81(.58) b	1.79(.56) b	1.68(.65) b	3.99**
		긴장감	2.13(.69) a	1.75(.53) b	1.79(.55) b	1.69(.63) b	4.81**
		심리적 부담	2.50(.68) a	2.07(.61) b	1.96(.56) b	1.98(.63) b	7.40***
		경제적 부담	2.26(.72) a	1.90(.54) b	1.70(.47)bc	1.54(.52) c	13.03***
		죄책감	2.44(.55)	2.34(.53)	2.36(.57)	2.34(.58)	.29
세대간 결속	남편	애정적 결속	3.05(.56)	3.02(.49)	2.96(.55)	3.01(.66)	.34
		규범적 결속	3.14(.44)	3.06(.39)	3.09(.47)	2.96(.48)	1.04
		기능적 결속	2.73(.48) a	2.45(.43) b	2.43(.47) b	2.64(.37) a	5.50**
	부인	일치적 결속	2.61(.61)	2.61(.50)	2.67(.53)	2.71(.71)	.40
		애정적 결속	2.46(.54)	2.68(.57)	2.65(.63)	2.87(.69)	2.52
		규범적 결속	2.85(.43)	2.78(.34)	2.74(.43)	2.65(.54)	1.57
	세대간 결속	기능적 결속	2.68(.43) a	2.29(.47) b	2.35(.49) b	2.55(.44) a	7.68***
		일치적 결속	2.27(.54)	2.36(.55)	2.42(.59)	2.47(.82)	.84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부부가 지각한 노부모의 사회 활동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우선 노부모의 사회 활동에 따른 노부모 부양부담은 남편, 부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하위영역별로 보면, 남편의 경우 노부모의 사회 활동에 따른 긴장감과 심리적 부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노부모의 사회활동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주 1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긴장감과 심리적 부담이 더 높았다. 부인의 경우는 노부모의 사회 활동에 따른 하위 영역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노부모의 사회 활동에 따른 세대간 결속은 남편, 부인 모두 전체 세대간 결속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남편의 경우 노부모의 사회활동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전체 세대간 결속이 가장 낮았으며, 부인의 경우 노부모의 사회활동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노부모의 사회활동이 월 2-3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더 낮았다. 각 하위영역별로 보면, 남편의 경우 노부모의 사회활동에 따라 애정적, 기능적, 일치적 결속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부모의 사회활동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애정적, 기능적, 일치적 결속이 더 낮았

다. 부인의 경우 노부모의 사회활동에 따라 애정적, 기능적 결속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노부모의 사회활동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노부모의 사회활동이 월 2-3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애정적 결속, 기능적 결속이 더 낮았다.

노부모의 사회 활동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남편, 부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편의 경우 노부모의 사회활동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낮았으며, 부인의 경우 부모의 사회활동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이 부모의 사회활동이 주 2-3회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더 낮았다.

<표 9> 노부모 사회활동에 따른 부부의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변 인		전혀 참여않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F 값	
세대간 결속	남편	애정적 결속	2.75(.64) b	2.99(.50) a	2.88(.56)ab	3.07(.44) a	3.12(.53) a	4.19**
		규범적 결속	3.03(.50)	3.04(.40)	2.97(.55)	3.10(.38)	3.12(.43)	.84
		기능적 결속	2.23(.48) b	2.53(.36) a	2.53(.47) a	2.64(.47) a	2.51(.43) a	5.34***
		일치적 결속	2.43(.60) b	2.61(.55)ab	2.50(.61)ab	2.68(.53)ab	2.76(.49) a	2.98*
		전 체	2.62(.42) b	2.81(.32) a	2.73(.41)ab	2.87(.35) a	2.87(.34) a	4.49**
	부인	애정적 결속	2.42(.68) b	2.60(.64)ab	2.70(.53) a	2.79(.60) a	2.73(.54) a	2.87*
		규범적 결속	2.71(.41)ab	2.73(.46)ab	2.62(.52) a	2.81(.37)ab	2.82(.37) b	1.66
		기능적 결속	2.21(.43) b	2.51(.47) a	2.50(.53) a	2.44(.54) a	2.39(.46)ab	2.77*
		일치적 결속	2.20(.60) b	2.27(.63) b	2.55(.67) a	2.46(.60)ab	2.42(.54)ab	2.30
		전 체	2.38(.40) b	2.53(.44)ab	2.59(.47) a	2.62(.37) a	2.59(.35) a	2.83*
결혼 만족도	남편	4.86(1.42) b	5.58(1.37) a	5.65(1.17) a	5.64(1.27) a	5.89(1.00) a	5.40***	
	부인	4.86(1.45) b	5.12(1.48)ab	4.98(1.46)ab	5.14(1.32)ab	5.42(1.23) a	3.07*	

* p<.05, ** p<.01, *** p<.001

그 외 노부모의 일반적 특성변인에 따른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노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편의 경우는 부양부담 하위영역별 중 경제적 부담이, 노모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육체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대간 결속 하위영역별 중 기능적 결속과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

다. 부인의 경우는 노부의 연령에 따른 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모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양부담 하위영역별 중 죄책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연구 결과는 <표 10>와 같다.

1) 노부모 부양부담과 세대간 결속의 관계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과 세대간 결속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남편과 부인 모두 노부모 부양부담의 죄책감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애정적 결속 및 일치적 결속에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일치적 결속과 심리적 부담간의 부적상관이, 부인의 경우 애정적 결속과 긴장감간의 부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경우 규범적 결속은 긴장감과 부적상관을, 죄책감과는 정적상관을 보였고, 남편과 부인 모두 기능적 결속과 생활 부족간에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남편, 부인 모두 노부모 부양으로 인한 사생활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육체적, 심리적 부담이 높을수록, 긴장감을 많이 느낄수록 애정적 결속과 일치적 결속은 더 낮음을 시사한다. 남편의 경우 규범적 결속이 강할수록 노부모 부양부담으로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2) 노부모 부양부담과 결혼만족도간의 상관관계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는 남편의 경우 죄책감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결혼만족도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 중 긴장감과 결혼만족도의 부적상관(r = -.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도 노부모 부양부담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부인 역시 긴장감과 결혼만족도가

<표 10>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간의 상관관계

구분	노부모 부양부담						세대간 결속				결혼만족도	M(SD)
	사생활부족	육체적부담	긴장감	심리적부담	경제적부담	죄책감	애정적결속	규범적결속	기능적결속	일치적결속		
노부모부양부담		.76***	.73***	.69***	.63***	.10	-.35***	-.08	.26***	-.22***	-.23***	1.83 (.63)
세대간결속		.67***	.70***	.73***	.65***	.12	-.37***	-.09	.09	-.33***	-.24***	1.84 (.62)
결혼만족도		.64***	.66***	.79***	.57***	.15	-.56***	-.14	.04	-.40***	-.39***	1.82 (.59)
사생활부족		.66***	.69***	.76***	.67***	.27***	-.42***	-.11	.08	-.34***	-.33***	2.09 (.63)
육체적부담		.65***	.56***	.55***	.60***	.27***	-.37***	-.09	.08	-.27***	-.25***	1.85 (.58)
긴장감		.12	.06	.06	.27***	.16**	.02	.04	.04	.01	-.16**	2.37 (.55)
심리적부담		-.16**	-.22***	-.33***	-.27***	-.15**	.07	.35	.42***	.67***	.34***	2.66 (.60)
경제적부담		.00	-.11	-.13*	-.01	-.02	.25***	.36***	.21**	.28***	.08	2.76 (.41)
죄책감		.11***	-.07	-.07	-.02	.04	.49***	.30**	.50***	.21**	.21**	2.40 (.49)
애정적결속		-.18**	-.31***	-.33***	-.35***	-.20**	.03	.60***	.24***	.46***	.30***	2.38 (.60)
규범적결속		-.21**	-.25***	-.38***	-.30***	-.15**	.01	.38***	.15	.33***	.30***	5.10 (1.38)
기능적결속												
일치적결속												
M(SD)		1.70 (.50)	1.71 (.61)	1.64 (.52)	2.01 (.53)	1.82 (.56)	2.70 (.63)	3.00 (.54)	3.07 (.44)	2.50 (.46)	2.64 (.55)	5.56 (1.27)

* p<.05, ** p<.01, *** p<.001 (참고: 대각선 아래는 남편, 대각선 위는 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임)

가장 높은 $r = -.39$ 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남편, 부인 모두 노부모 부양부담으로 사생활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더 낮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 상관관계

부부가 지각하는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는 남편의 경우 세대간 결속의 모든 영역과 결혼만족도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부인의 경우 규범적 결속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결혼만족도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혼자녀부부는 노부모와의 세대간 결속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더 높게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 모두 애정적 결속과 결혼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r = .38$ 과 $r = .3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남편과 부인 모두 부양부담이 높을수록 세대간 결속이 낮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과 세대간 결속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앞서 차이분석에서 도출된 유의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rbin-Watson계수를 산출하여 잔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간에 Durbin - Watson계수가 1.89 ~ 2.02로 잔차간에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회귀분석의 모델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첫 번째 단계는 남편과 부인별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가운데 결혼만족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중다회귀분석에 투입하였고, 두 번째 단계는 이들 통제변인들이다 노부모 부양부담의 각 요인을 첨가시켰으며, 세 번째 단계는 세대간 결속의 각 요인들을 첨가 시켰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결혼만족도에 대한 제변인의 영향력

구 분	남 편			부 인		
	β	β	β	β	β	β
통제 변인						
연 령	-.24***	-.21***	-.19**	-.04	.00	.02
교육수준 a	.16**	.14*	.12*	.21**	.20**	.18**
노부모 사회활동 b	.24***	.19**	.13*	.15*	.13*	.10*
부 양 부 담	사생활부담	.00	-.05	.17†	.07	
	육체적부담	.00	.02	.02	.05	
	긴 장 감	-.32**	-.26**		-.43***	-.36**
	심리적부담	-.06	-.05		-.05	-.05
	경제적부담	.13	.12		-.06	-.04
최 책 감	.04	.02		-.08	-.09	
세 대 간 결 속	애정적 결속		.20**		.05	
	규범적 결속		.00		-.05	
	기능적 결속		.12		.15†	
	일치적 결속		-.02		.03	
F-value	15.75***	9.36***	8.59***	7.29***	8.05**	6.68***
R ²	.16	.26	.32	.08	.24	.27
R ² -Change		.10	.08		.16	.03
Durbin-Watson		1.89		2.0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a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0 · 대졸이상 = 1

b : 사회활동 : 무 = 0 · 유 = 1

우선 남편 결혼만족도는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16%이었고, 유의한 영향변인은 연령과 교육수준, 노부모 사회활동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노부모 부양부담 요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은 10%가 증가된 26%를 나타냈으며 통제변인과 노부모 부양부담의 하위요인인 긴장감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 세대간 결속 요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은 32%로 증가하였으며 통제변인과 노부모 부양부담의 하위요인인 긴장감과 세대간 결속의 하위요인인 애정적 결속이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노부모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부담의 하위 변인인 긴장감이 적을수록, 노부모와의 애정적 결속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노부모 부양부담의 긴장감이었다.

다음으로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통제변인의 설명력이 8%로 교육수준과 노부모 사회활동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노부모 부양부담 요인이 첨가되면서 16%가 증가된 총 변인의 설명력이 24%를 나타냈으며, 교육수준, 노부모 사회활동, 노부모 부양부담의 하위요인인 긴장감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사생활부족은 유의수준에 접근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세대간 결속 요인이 첨가되면서 총 변인의 설명력은 27%로 증가하였고 교육수준, 노부모 부양부담의 하위요인인 긴장감이 유의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인인 노부모 사회활동과 세대간 결속의 하위요인인 기능적 결속은 유의수준에 접근하였다. 즉 부인은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부양부담 하위변인인 긴장감을 적게 느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노부모 부양부담의 긴장감으로, 세대간 결속보다 노부모 부양부담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부부와 노부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부부가 지각한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노부모 부양부담과 세대간 결속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분석함으로써 기혼자녀와 노부모 관계 향상과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자료는 전라북도에 거주하며 노부모가 한 명 이상 있는 부부 259쌍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 부양부담은 부인이 남편 보다 높게 나타났고 하위영역 중 죄책감 영역에서는 남편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부모 부양부담에 있어서 부양자체가 문화적 규범이나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로 여성이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업이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부담 수준에서 부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Lawton et al, 1991). 그리고 부인보다 남편이 노부모 부양에 따른 죄책감을 더 느끼는 것은 남편이 부인보다 자신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의무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결과(임춘희·정옥분, 1988)로 볼 때, 부양책임을 강하게 느끼는 남편이 실질적으로 부양을 부인에게 대리 수행시킴으로써 발생하는 부담감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부인은 남편의 노부모 부양을 의무감으로 느끼기 때문에 남편보다 부양부담을 더 많이 지각하게 된다고 사료된다.

둘째, 노부모 경제능력에 따른 세대간 결속의 하위영역인 기능적 결속에서 노부모가 부부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노부모 부양부담이 더 높았다. 이는 노부모가 갖고 있는 자원이 많을 때, 기혼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신효식·서병숙, 1992; 장선주, 1989; 전길량·김태현, 1993)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기혼자녀가 노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노부모가 기혼자녀에게 주는 지원이 비슷하거나 부모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때 노부모 부양부담이 낮아진 것은 기혼자녀와 노부모 관계가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노부모 부양부담과 부적상관이 있고, 세대간 결속과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이는 가족이 하나의 체계로서 부부관계가 노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 받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부양의 책임을 여전히 기혼자녀에게 맡기는 규범이 지속되는 한 노부모와의 관계나 부양부담이 부부관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노부모 부양부담의 하위요인인 긴장감이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노부모와의 세대간 결속보다는 노부모 부양부담이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부부와 노부모와의 관계가 인생의 전 주기에 걸쳐서 지속된다는 점을 볼 때, 만족스런 부부관계와 노부모와의 세대간 관계를 지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노부모 부양부담 측면에 더 초점을 두어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을 극소화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부모 부양부담의 설문지 질문 중 '부모님은 나를 자주 나무라시고 불평하신다', '부모님과 의 문제 때문에 아내(남편)와 나 사이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부모님이 나를 조정하는 느낌이 든다', '부모님을 돕는 노력이 헛되고 소용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등의 긴장감 항목에 점수가 높다는 것은 노부모 및 부부간의 감정 전달이나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부

대화법, 의사소통 프로그램 등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보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은 실질적인 부양부담을 맡은 기혼여성인 며느리나 딸에게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가족은 전통적인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되었고 부계가족부양의 체계가 점차 약화되어 양계가족부양의 증가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대상을 며느리와 딸뿐만 아니라 아들과 사위까지도 함께 다루어 보다 폭넓은 상호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노부모 부양부담 및 세대간 결속과 부부의 결혼만족도의 역동적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참여 관찰법이나 비구조화된 면담법, 사례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가족생활의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접수 일 : 2003년 07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10월 28일

【참 고 문 헌】

- 김경신·이선미(1998). 중년부부의 노부모 부양부담감과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9), 93-106.
- 김명자(1985).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24.
- 김명자·안선자·한정화 (1996). 신세대와 중년기 부부의 노부모 부양에 따른 부담감 및 보상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97-109
- 김송애(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부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최정혜(1991).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부모-성인자녀관계 연구에 대한고찰. **생활문화연구**, 5, 161-178.
- 서병숙·장선주(1990).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 교류 연구 - 아들 동거노인과 딸 동거노인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3(3), 171-186.
- 성미애(1991). 부모세대의 피부양만족도와 기혼자녀세대의 부모부양부담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송현애(1987).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인-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 송현애(1993).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

- 국대 박사학위 논문.
- 신효식(1993). 노부모-기혼자녀간의 결속도, 자아 존중감, 심리적 손상간의 인과모형 탐색.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신효식·서병숙(1992). 기혼자녀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가 노부모의 심리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2(2), 99-108.
- 양옥남(1994). 노인과 부양자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우미경(1988). 노후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윤경자(1997).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 : 두 이론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5(4), 31-46.
- 윤순덕·한경혜(1994). 도시 기혼여성이 지각한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비용. *한국노년학회*, 14(2), 105-120.
- 이신숙(1994).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노부와 유대를 중심으로.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이신숙·서병숙(1993). 노모와 동, 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스트레스 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29-139.
- 이신숙·서병숙(1994). 기혼여성(며느리, 딸)의 노부모 부양스트레스와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57-71.
- 이윤정(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갈등과 우울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 학위논문.
- 이정화(1999). 부양의식과 형제자매 지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농촌며느리의 시부모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이행규(1996). 기혼여성의 노부모부양 정도와 노인관계.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형실(1992). 노부모 부양경험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2), 41-50.
- 임춘희·정옥분(1988). 분거한 도시 장남부부의 부양의식 유형. *대한가정학회지*, 26(1), 163-177.
- 장선주(1989).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 전길량(1993). 노모와 성인 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부양기대요인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전길량·김태현(1993). 노모와 성인 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부양기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3(1), 17-38.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조병은(1990).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도와 노부모의 인생만족도. *한국노년학*, 10, 105-124.
- 조병은·신화용(1992). 사회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맞벌이 가족의 성인 딸/며느리와 노모의 관계. *한국노년학*, 12(2), 83-98.
- 조유리·김경신(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광주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1-22.
-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 한경혜(1996). 농촌단독가구노인의 자녀관계. *한국노년학*, 16(2), 21-38.
- 한은주(1993).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만족도와 부양부담도.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1). *한국의 사회지표*.
- Baruch, G. & Barnett, R. C.(1983). Adult daughters'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5, 602-606.
- Bengtson, V. L., Mangen, D. J. & Landry, P. H.(1984). The multi-generation family : Concepts and findings. In V. Garms-Homolova, E. M. Hoering & D. Schaeffer(Ed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New York : C. J. Hogrefe, Ins.
- Bengtson, V. L. & Schrader, S. S.(1982). Parent-child relations. In D. J. Mangen & W. A. Peterson(Eds.). *Handbook of Reaserch Instruments in Social Gerontology*, 2.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ordy, E.M.(1985). Parent care as a normative family stress. *The Gerontologist*, 25, 19-29.
- Burr, W. R.(1979).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 Arandom middle class s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12-20.
- Cicirelli, V. G.(1983a). Adult children and their elderly parents.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Cicirelli, V. G.(1983b). Adult children's attachment and helping behavior to elderly parents: A pa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15-825.
- Fischer, L. R.(1983). Mother and Mother-in-la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 187-202.
- Lawton, M. P., Moss, M., Kleban, M. H., Glicksman A. & Rovine, M.(1991). "A two-factor Model of caregiving Apprais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Sciences*, 46(4), 181-188.
- Montgomery, R. J. V., Gonyea, J. C. & hooyman, N. R.(1985). Caregiving and the experience of subjective and objective burden. *Family Relations*, 34, 19-26.
- Schumm, W. R., Anderson, S. Benigas, J., McCutchen, M., Griffin, C. & Race, G. (1985).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Psychological Reports*, 56, 719-722.
- Seelbach, W. C. & Sauer, W. J. (1977).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nd morale among aged parents. *The Gerontologist*, 17, 492-499.
- Spitze G. & Miner S.(1992). Gender differences in adult child

- contact among black elderly parents. *The Gerontologist*, 32(2), 213-218.
- Stoller, E. P. & Pugliesi, K. L. (1989). Other roles of caregivers: Competing responsibilities or supportive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44, 231-238.
- Sutor, J. J. & Pillemer, K.(1988). Explaining intergenerational conflict wh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live togeth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0, 1037-1047.
- Sung, K.(1990). A new look at filial piety : Ideals and practices of family-centered parent care in korea. *The Gerontologist*, 30(5), 610-617.
- Walker, A. J., Pratt, C. C. & Oppy, N. C.(1992). Perceived reciprocity in family caregiving. *Family Relations*, 41(1), 82-85.
- Williamson. E. M. & Schulw, R.(1990). Relationship orientation, quality of prior relationship, and distress among caregivers of Alwheimer's patients. *Psychology and Aging*, 5(4), 502-509.